

## 추억이 담긴 재학생의 학과생활 이야기 -4년 대학생활을 마무리 하며-

10학번 강승민

2010년 2월 대학을 입학하여 1학년 때부터 군대를 다녀온 시간과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6년이 지난 2016년 12월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. 1학년 때 입학하여 미네르바 축제를 끝내고 군대를 가고, 13년 군대에서 전역 후 학과에 복학했을 때에는 13학번의 모르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지요. 당시 매력철철 철학과 집행부 소속으로 과 생활 열심히 하며, 12학번 13학번 친구들과 아주 재미있게 1년을 보냈던 기억들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네요. 14년도 때에는 제주대학교 총대의원회 소속으로 1년을 보냈고, 15년도에는 제 동기이자 친구 승수와 같이 과 학회장단으로 1년을 보내며, 철학과를 마지막으로 대학 4년을 마무리 했네요. 4년 동안 학생회 활동하면서,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, 많은 추억거리가 쌓이고, 돌아보면 정말 대학생활 재미있게 보낸 거 같아요.

지금까지의 얘기했던 대학생활은 정말 재미있었던 추억들의 이야기입니다. 제가 후배님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은 지금부터예요. 현재 저는 5학년 1학기 수업연한 초과자로, 1학기 더 수강을 받아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. 왜일까요? 그 이유는 관광개발 복수전공하고 있는 저에게 관광개발 학점이 모자라는 상황이었고, 빵구(?)났던 학점을 재이수하고자 한 학기를 더 수강해야 했어요. 그 당시 저는 학과, 학생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학업 쪽에서는 많은 것을 놓쳤던 것 같아요. 물론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.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학교생활을 즐기는 것도 좋지만, 미래를 생

## 추억이 담긴 재학생의 학과생활 이야기 ■

각하고, 본인이 학생의 신분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진중하게 생각해보고, 그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야 훗날에 후회하는 일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.

제 나이 26살 저는 현재 취업준비생이며, 기업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제 한 톨 마음에 조금만 어릴 때 공부를 좀 더 해둘걸... 여러 가지 대외활동도 좀 더 해봤으면... 2~3학년 때 자격증 하나라도 더 따놓을걸... 그랬다면, 지금 당장 좀 더 나은 나를 이야기 할 수 있었을 텐데... 조그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^^ 그렇지만 이러한 후회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고, 좌절하며 살고 있는 않지만, 조금의 아쉬움은 있습니다. 그러니 어릴 때 노는 시간 조금씩 줄이고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고, 여러분들 상황에 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! 그러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로 여러분께 꼭 찾아갈 날이 있을 거예요!

마지막으로 철학과 여러분!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“지지자불여호지자, 호지자불여락지자” : 어떤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,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라 하셨습니다~ 그만큼 자신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일들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겠죠? 자신이 좋아하는 일, 하고자하는 일, 대학생활 즐기면서 꼭 찾아보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!, 집에서 뒹굴거리는 시간보다는,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, 학업도 열심히 하고,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, 대학생활 많은 것을 얻어 갈 수 있는 현명한 철학과 학우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.